사랑하는 이여, 극락가소서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㉘ 정토삼부경 3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2

자신이 지은 업보로 인해 아들에게서 사형을 언도받은 남편을 생각하니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는 날엔 꼭 극락세계로 가고 싶다는 위제희왕비의 머리 위로 부처님의 입에서 5가지 광명이 피어올라 감싸더니 빔비사라왕이 있는 감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그 광명의 은덕으로 장애가 없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신통력이 생겨나 멀리 허공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왕은 즉시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자 과거에 지어온 모든 선업이 그대로 증장되어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아나함과를 증득한다.

"왕비여, 누구나 극락을 갈 수 있다. 단 3가지 복을 지어야 한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지성으로 봉양하며 스승과 어른들도 공경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공경하고 청정한 삶을 위하여 계를 받고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는 반드시 깨달아야 겠다는 마음, 보리심을 일으켜 일상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극락에 태어나는 전제 조건인 청정한 선업을 닦는 것이다. 누구든지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이 선업부터 수행해야 한다."

부처님은 아난을 불러 위제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위신력으로 극락세계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설할 것이니 잘 기억해 두라고 하신다. 위제희와 아난은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방법 16가지에 대해 말씀하신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과 자연환경과 부처님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직관하는 능력을 키워 그들을 통해 공존하는 삶의 지혜를 관조해 보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단순히 방법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말할 때마다 극락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 4D를 사용한 영상교육이었다.

첫째는 일상관(日想觀)이니 먼저 타오르는 번뇌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서쪽 하늘에 걸려있는 태양을 바라보라. 이글거리는 번뇌도 저 태양처럼 사라져 가리니 눈을 똑 바로 뜨고 태양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언제든지 일념으로 극락을 직관하도록 하여라. 둘째는 수상관(水想觀)이니 맑고 깨끗한 물을 바라보라.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을 생각하라. 유리같은 얼음위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극락세계의 장엄한 건물과 장식을 생각해보라. 바람이 불면 거기서 "미혹한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는 없다. 왜냐하면 모두 무상하니 다 사라져 가기 때문에 나조차도 없는 것이다."는 법문 음악이 흘러나온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직관하라. 셋째는 보배의 땅((寶地觀)이니 극락세계의 땅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생각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부처님이 극락을 낱낱이 보여주셨다. 넷째는 보배로운 나무(寶樹觀)이니 아까 본 극락세계의 땅에서 자란 아름다운 나무들이다.

일곱겹으로 늘어서 있는 그 나무들은 고운 잎들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광채는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서로 공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슴에 새겨두고 일념으로 기억해두라. 다섯째는 보배로운 연못, 여섯째는 보배로운 누각, 일곱째는 아름다운 연꽃으로 된 사자좌, 여덟째는 아미타불과 두 보살이 이 연화좌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며 일념에 드는 상상관(像想觀), 아홉째는 진신관(眞身觀)으로 이 땅에서 극락세계 부처님이 지닌 형상과 공덕상을 두루 생각하며 극락세계를 직관하는 것, 열째는 관음관(觀音觀)으로 관세음보살의 진실한 모습을 생각하며, 열한번째는 세지관(勢至觀)으로 대세지보살의 광명을 보고 기억하는 것, 열두째는 보관(普觀)으로 아미타불의 계시는 곳에 직접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열세째는 잡상관으로 아미타불, 관음, 세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며 친견을 꿈꾸는 것, 열네째는 극락에 태어날 우리들의 모습인 상배관(上輩觀)으로, 열다섯째는 중배관으로, 열여섯째는 하배관으로 상품상생부터 하품하생까지 9품의 사람들이 극락에 태어나는 모습을 생각하라고 하셨다.

위제희는 이 법문을 듣고 감동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옆에 시녀를 보니 그녀가 잠자고 있어서 얼른 깨우며 부처님께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간청한다. 시녀에게 말한다. 이 법문을 잘 듣고 후일 아사세가 부모를 죽인 것을 후회할 때 유언이라며 모든 이들이 극락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세상에 알리라 하자 부처님은 다시 한 번 똑같은 방법으로 법문을 하셨다고 한다.

〈서울 반야사 주지〉

고난이 곧 축복, 번뇌가 곧 보리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㉗ 금강경의 네가지 진리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진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이 다 우리 마음이 빚어낸 결과라는 일체유심조, 우리 마음이 실은 착각이요 없는 것이라는 공(空), 마음을 닦으면 너와 나의 장벽이 사라짐과 동시에 번뇌가 곧 보리요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니 따라서 나는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구족했다는 구족(具足)입니다. 금강경 중 특히 16분에서 불이(不二)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여! 금강경 16분을 수지독송하라! 그러면 그대들이 받는 경천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요 죄업의 소멸이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것은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불이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생사를 자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6분 중 어떤 구절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뇌가 곧 보리며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불이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일까요?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

시인(是人) 선세죄업(先世罪業) 응타악도(應墮惡道)

이금세인(以今世人) 경천고(輕賤故) 선세죄업(先世罪業) 즉위소멸(則爲消滅)

당득아누다라삼막삼보리(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위 글을 쉽게 풀어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여!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여도 고난이 되풀이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이 지중함으로 당연히 사람 몸을 못 받고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언제인가 지은 선근으로 말미암아 용케 사람의 몸을 받기는 하였으나 전생에 지은 죄업이 워낙 무거워 각종 고난이 생기는 것이다. 이 재앙은 금생(현생)에 죄지은 결과로 생기는 고난과는 다르다. 보통 사람들의 지혜로는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그 원인이 금생에 있지 않으며 전생에 지은 죗값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사람이 금생에 금강경을 만나 수지독송 할 수 있다면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한 각종 재앙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뿐 아니라 마침내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불이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대여! 만약 그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내게 너무나 힘든 일이며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 이름 지으며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정성껏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치다보면 이 생각들이 점차 엷어지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에 벗어나는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바치다 보면 이 생각이 착각임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 앞에 있는 행복과 축복을 발견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여실지견(如實知見) '이 뭣고'

불지견(佛智見)이라는 말이 있다. 오온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지혜가 생겨나서 오온이 청정했을 때 다시는 윤회하지 않음을 생활속에서 '이뭣고' 수행으로 깨닫고,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를 말하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우리의 몸은 무시무종(無始無終), 상주불멸(常住不滅)한 마음 위에 이뤄진 하나의 형상이다. 마치 풀 위에 맺힌 이슬같이 아침에 낀 안개와 같은 것이다. 또한 산골짜기서 메아리가 울리지만 메아리 소리가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은 허망(虛妄)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속에 이어지는 수많은 전쟁과 혼란의 시초는 무명(無明)의 한 생각서 시작된 것이다. 사회적인 지위, 권력, 명예 등도 역시 허상(虛像)에 불과한 유한(有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본래불(本來佛)이라는 진실을 멀리 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뒤로하고 전도(顚倒)돼 착각 속에서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다. 불성이란 내 생명과 우주 만물 만생의 본성이다. 그러니 전체가 다 너와 내가 사물과 둘이 아닌 한 생명 인데, 너와 내가 둘이 되어 시시분별(是是分別) 속에 다툼이 있고,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주의 도리란 자비 지혜 행복의 능력을 스스로 갖춘 진실한 생명으로 인간뿐 아니라 일체 만물 만상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며, 자기만이 최고라는 아만심서 벗어나야 일체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물의 모습이나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익에 맞춰 이해하고 판단해 생겨난 잘못된 이념은 결과적으로 나와 남을 파괴와 혼돈으로 몰아 피해를 입히는 죄업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인류의 역사속에 이어진 수많은 전쟁과 혼란의 시초는 무명의 한 생각서 시작됐다. 사회적인 지위, 권력, 명예 등도 역시 허상(虛像)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 문제를 뒤로하고 전도돼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다.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한 IS전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신(神)의 뜻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순교라 믿고, 무고한 사람들을 폭탄테러로 희생시킨다. 이러한 맹신 행위가 나중에 왜곡된 어리석은 짓으로 밝혀진 사례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이어진다.

악마로부터 사회를 지키겠다는 자신만의 믿음으로 행해진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유대인을 악의 근원으로 믿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낡은 사상과 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수많은 희생과 파괴를 낳은 중국의 문화대혁명때 홍위병의 만행, 360년이나 이어진 십자군 전쟁 등은 모두 무명의 한 생각으로 시작된 사상으로 인해 인류에게 끼친 악업의 사례이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결과가 임진왜란과 일제의 침략으로 36년간 치욕의 식민지 생활을 거쳐 6.25전쟁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게 마련이며 나를 중심으로 아집과 아상에 사로잡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을 갖기 마련이다. 자기의 잘못된 식견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며 정반합(正反合)의 도리를 망각(忘却)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을 겪는다.

내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서 바라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이야말로 사회와 국가간에 빚어진 크고 작은 갈등서 야기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뒤따르는 전쟁을 피함은 물론 진정한 인류의 행복이 찾아오게 만든다. 모든 오해의 근본인 한 생각의 뿌리를 생활속에서 '이 뭣고'로 다스리는 수행이 절실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